chudosa.com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그리고 엄마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김선자, 저희의 엄마, 선자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1959년 3월 15일에 태어나 2026년 4월 10일, 향년 67세로 우리 곁을 떠나신 엄마는, 끝까지 따뜻함과 정직, 그리고 배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엄마는 서울에서 자라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시립병원에서 35년간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곁에서 지키며, 차분한 목소리와 단단한 손길로 사람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먼저 듣자”가 엄마의 습관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조용히 손을 잡고, 필요한 말만 건네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밤, 하얗게 닳은 운동화를 신은 채 문을 열며 “오늘도 잘 버텼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작은 혼잣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실의 증명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 이정호님과 42년을 함께하시며, 두 자녀와 두 손주를 정성으로 돌보셨습니다. 약속을 미루지 않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삶. 그것이 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힘든 날이든 바쁜 날이든, 누군가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걸려오던 전화 한 통. “괜찮니? 밥은 먹었니?”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겨울이면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했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배추를 버무리며 엄마는 늘 웃으셨습니다. 저희 손이 서툴러 김칫국물이 튀면, “괜찮아, 음식을 하는 건 정성을 버무리는 거지” 하며 앞치마 끈을 더 단단히 묶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향과 온기, 그리고 김장독을 땅에 묻고 나서 모두의 손을 꾹 잡아보던 그 짧은 침묵이, 우리 가족의 결속을 키웠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엄마의 손맛과 포근한 미소는 늘 함께입니다.

엄마는 병원 밖에서도 돌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셨고, 이웃 돌봄 모임을 이끄시며, 바쁘고 지친 이들의 사정을 조용히 챙기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선자 어머니”라 부르며 문을 두드리면, 엄마는 늘 시간을 내어 차를 데우고,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것을 메모했습니다. 경청의 자세와 작은 일에 깃든 정성, 그 꾸준함이 동네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의 취미도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와 장갑을 겨울마다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 주셨고, 성가대에서는 맑은 목소리로 곁사람의 음을 받쳐 주셨습니다. 창가의 작은 화분을

정성껏 돌보며 “식물도 말없이 다 이야기해”라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엄마는 큰 제스처보다 작은 기척으로, 떠들썩한 말보다 조용한 손길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chudosa.com에서 다른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엄마에게 중요한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정직, 배려, 가족 우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 가치의 마지막 장에는 엄마의 장기기증 서약이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생각하셨던 그 선택은, 엄마 삶의 결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은 깊지만, 누군가에게는 엄마가 건네신 새로운 숨과 시간이라는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에게 엄마는 언제나 따뜻한 등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말을 잇지 못하는 날, 엄마는 먼저 묻지 않고, 먼저 조언하지 않고, 먼저 식탁에 국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따끈한 그릇 앞에서야 비로소 제 이야기는 흘러나왔고, 엄마는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짧게 말해 주셨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중요한 건 네가 납득하는 길이야.” 그 말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목소리에도 그 리듬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랜 세월 당신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버틴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잘 압니다. 그러나 엄마가 삶으로 보여준 배려와 약속, 그리고 함께의 힘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두 손주에게는 할머니의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작은 화분의 새순처럼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엄마의 방식을 조금씩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주고, 작게 돕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일로요.

오늘 우리는 슬픔 속에 있지만, 엄마의 삶은 슬픔만으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병실의 새벽과 부엌의 저녁, 이웃의 현관과 성가대의 합창, 그리고 겨울 김장마당의 환한 웃음까지. 그 모든 장면이 모여 엄마의 생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생이 우리에게 남긴 방법으로 서로를 돌보겠습니다.

엄마, 김선자. 당신의 포근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가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마음의 질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힘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그러하셨듯,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고맙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힘들 때마다 먼저 다가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마지막 선행까지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당신이 아끼던 노래처럼, 조용하고 맑은 빛 속에서.

그리고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챙기며,

당신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